

# 흑자 원년을 기록할 확신을

= 韓國重工業(株) =

민영화, 공영화의 오랜 논란이 끝나고 공영화 체제에 의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되고, 전문 경영체제가 갖추어 지면서 '90년은 시작되었고 제2의 창업정신으로 경영화의 기초를 다지면서 '90년은 마무리 되었다. 이제 1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부실기업의 명예를 벗고 흑자 원년을 기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91년을 맞이 하고 있다. 원자력 사업 부문에서도 이미 제작, 출하되고 있는 영광 3,4호기 사업에 추가하여 월성 2호기 및 울진 3,4호기 사업을 새로이 추진케 됨으로써 원자력 발전설비의 설계제작 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우선 손익전망을 소개하면 매출이 '89년 대비 249%, '90년 대비 167% 신장한 1조원대에 이르게 되어 최초로 경상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1조 6천억원 이상을 수주하여 '91년 이후의 일감을 확보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흑자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91년도 한중의 원자력사업은 총 매출의 23% 수준인 2천 3백억원 정도를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우선 한중이 주계약자가 된 최초의 발전소이면서 기술자립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영광 3,4호기는 '87년 4월 계약 이래 주단조 소재의 개발 등 초기 국산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4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당초 계획대로 '91년

10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의 주기기 납품을 비롯하여 50% 이상의 기자재를 출하함으로써 사업공정의 질정을 이루게 될 것이며 기술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설치작업의 기술지원에 착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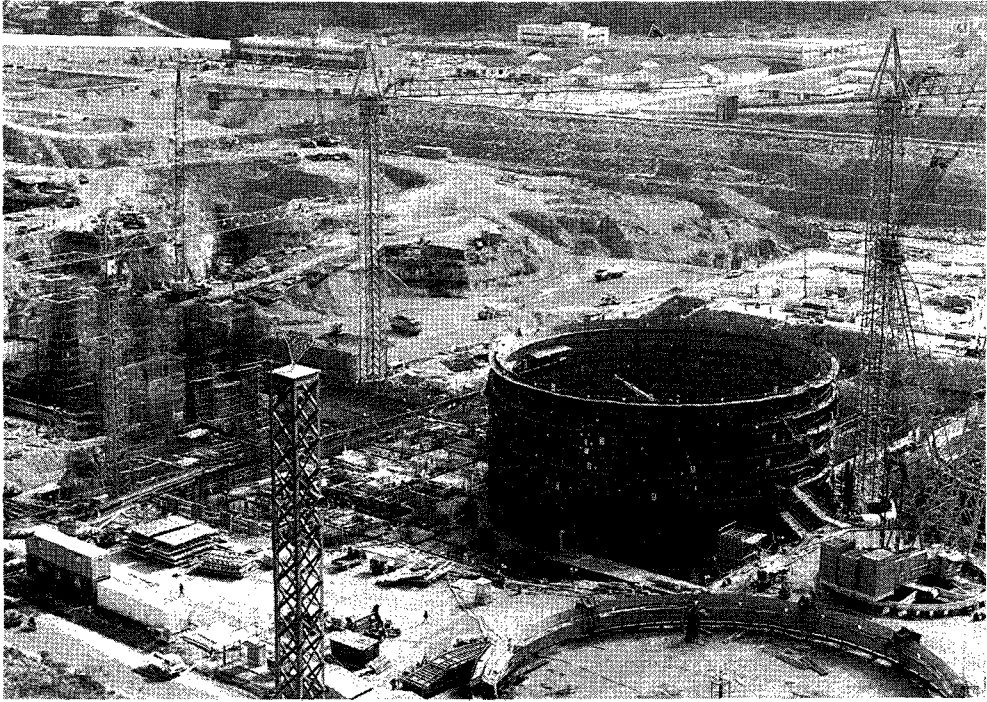
'90년 12월말 계약된 월성 2호기 중수로 사업은 '94년 4월 주기기인 증기발생기를 제작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캐나다의 AECL사와 함께 엔지니어링, 자재발주, 제작작업 등을 '91년 1월부터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울진 3,4호기 사업은 '91년 1/4분기 계약 체결 목표로 관련사와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단소재 등 제작기간이 긴 품목에 대해서는 1월부터 조기 제작 할 계획으로 있다. 울진 3,4호기는 한중이 명실상부한 주계약자가 되는 최초의 사업이고 기술자립 성과를 최초로 활용하는 사업이며, 표준 원전설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 등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사적으로 사업계약을 수립중에 있으며, 특히 이제까지 외국사에 의존해 왔던 엔지니어

<표1> 한중 수주, 매출 실적 및 계획

(단위 : 수주/매출(억원), 1인당 매출(백만원))

구 분	'89	'90	'91
수 주	9,219	14,161	16,550
매 출	4,167	6,219	10,380
1 인 당 매 출	64	99	167



〈표2〉 영광 3,4호기 기자재 납품실적 및 계획

구 분	단위	총 물 량	'90. 말 누 계		'91. 계 획		'91. 말 누 계	
			물 량	진 도(%)	물 량	진 도(%)	물 량	진 도(%)
기 기	EACH	796	53	7	388	49	441	55
자 재	TON	18,839	4,589	25	11,772	83	16,361	88

링 업무를 우리의 손으로 수행키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취약부문을 보완해 가고 있다.

'91년 한중의 원자력사업은 시운전을 제외한 원전건설의 전 과정, 즉 엔지니어링, 구매, 제작, 설치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해로서 한중 원자력사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원자력사업 수행계획의 달성이 한중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특히 설계 및 제작 품질보증을 통하여 원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기자재 납기를 준수하여 건설공기의 지연요인을 배제해야 하며, 가격 경쟁력을 향상하여 원전의 경제성 제고에 기여 하여야 하

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한중에게 주어진 이러한 과제들은 경영 정상화를 향한 6,000여 종업원의 공감대 형성 및 자신감 회복을 통한 사람과 조직의 힘의 결집, 노후화 되고 구식화 된 설비의 개선, 부족한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하여 풀어 나갈 것이다. 특히 '90년 초 부터 기초를 닦아온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과 경영의 자율권 확보 등이 '91년에는 뿌리를 내리도록 한중 전 가족은 뜻과 힘을 모을 것이며,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일보다 더 많은 양의 일, 더 높은 질의 일을 더 빨리, 더 싸게 해 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